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9·10 2018 | Vol. 558

일본의 가을(日本の秋)
Photo : HAN SEUNGYEOP_교토_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주한일본대사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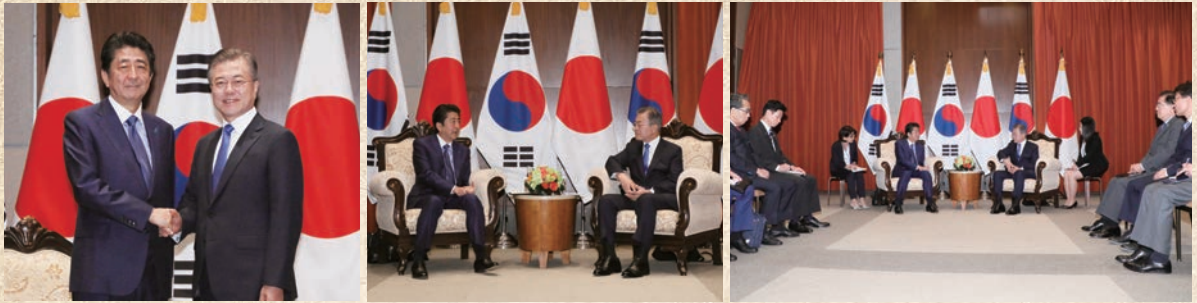


Photo :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일한 정상회담

9월 25일 오전 11시 20분(현지시간)부터 약 50분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실하게 전달했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일북 정상회담은 필수적이며, 이 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올해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라는 전기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 이 회담에서 남치 문제를 포함한 일북 관계를 언급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린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 나아가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 간의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 되는 올해,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본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재차 남

치 문제를 제기하게 된 취지를 설명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자신(아베 총리)도 상호 불신의 틀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일한 관계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한 합의의 착실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일한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두 정상은 위안부 문제가 일한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 또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제기했다.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맺음말

아베 총리는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일한미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일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하며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과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했다.

일한 외교장관회담

9월 26일 오후 5시(현지 시간)부터 약 50분,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무대신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모두 발언

고노 외무대신은 지난달 하노이에서도 만나 뵈었고 남북 정상회담 등 동북아 평화, 안정과 직접 관련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일한 협력이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및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위한 한국의 리더십과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한, 일한미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하며, 중장기적인 일한 관계 진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아갈지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2주 만이며, 올해 들어서 벌써 7차례 회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감사하며, 일한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

고노 외무대신은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치 문제를 포



Photo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함한 일북 관계를 언급해 주신 데 감사하며,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는 관점에서라도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일한, 일한미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한 관계

고노 외무대신이 주도하는 '일한 문화·인적 교류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의 제언이 10월 초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앞으로 이 전문가 회의 위원과 강경화 장관이 주도하는 '한일 문화·인적 교류 태스크포스(TF)' 위원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조정해 가기로 했다. 또, 양국 외교장관은 전문가의 의견 교환 결과도 참고하면서 앞으로 양국 정부 간에 문화, 인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속하기로 했다. 나아가 고노 외무대신은 위안부 문제 및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재차 제기했으며, 양국 외무대신은 일한 간의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9월 11일, 세계경제포럼 아세안지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고노 타로(河野太郎) 외무대신은 오후 3시 30분경(현지 시간)부터 약 60분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모두에 강경화 장관은 지난 태풍 21호 및 훗카이도 이부리 동부지진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고노 타로 외무대신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두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지난번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포함해서 최근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노 타로 외무대신은 오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간 대응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



Photo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두 장관은 일한, 일한미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서 양국 간의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조율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해갈 것을 확인했다.



자매결연 25주년 공동선언

가나가와현과 경기도의 교류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 관동 평야의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으로는 수도 도쿄와 접해 있고 동으로는 도쿄만, 남으로는 사가미만에 면해 있다. 서쪽은 아마나시현 및 시즈오카현의 두 현과 이웃해 있다. 면적은 약 2,415km²이며 인구는 약 910만 명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별 인구로 보면 도쿄도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가나가와현은 33개 시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정령지정도시 3곳(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가미하라시)을 품고 있는 현이다. 또, 가나가와현은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요코하마와 가와사키는 도시화의 진행으로 교통망, 공공 서비스, 도시 시설 등이 잘 정비

되어 있어 주민 생활의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완만한 해안선과 울창한 산 등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과 독자적인 문화 속에서 가꾸어진 시가지 풍경과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 많아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가나가와현과 경기도의 교류

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중간다리 역할에 힘입어, 1990년 4월 나가스(長洲) 지사(당시)를 단장으로 하는 가나가와현 방문단이 경기도를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 이래로 가나가와현과 경기도는 지금까지 다양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에 있는 가나가와현립 미쓰이케공원에는 경기도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기념해서 재일동포들에게는 고향을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현민들에게는 한반도 문화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장이 되도록 '코리아 정원'이 조성됐다. 코리아 정원에서 해마다 봄가을로 개최되는 '코리아 마당'에는 경기도에서 민요 가수와 도예가 등이 참가해 한국과 경기도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에노시마



제11회 우호 현성도 교류회의

또,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중국의 라오닝성과 함께 3지역의 현성도(県省道)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세 지역 간 우호·협력 관계의 폭을 넓히는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 지역이 공통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모색과 문화 교류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논의하는 ‘우호 현성도 교류회의’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제11회 교류회의가 경기도에서 개최되었다.

2004년부터는 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며 국제적인 감각이 풍부한 청소년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3 현성도 스포츠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애초에는 남자 축구 한 종목뿐이었지만, 2007년부터는 여자 농구가 추가되었고 2014년부터는 남녀 탁구가 추가되어, 참가자와 경기 종목을 늘려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제13회 스포츠 교류 사업이 경기도에서 개최되었다. 또, 세 지역이 상호 직원을 파견하는 ‘직원 교류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교류 직원은 세 지역의 교류 사업과 관련해 제반 사항을 조정하는 한편, 문화, 경제, 지방자치 등 상대방 지역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가나가와현과 양 지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 관계를 촉진하고, 일중·일한의 우호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파견되고 있다. 가나가와현과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각각 9명의 직원이 상호 파견되었다.

2015년에는 우호체결 25주년을 기념해 구로이와(黒岩) 지사 등이 경기도를 방문했다.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당시)와 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한편, 기념 강연



가나가와현립 미쓰이케공원(코리아 정원)

을 실시하고 경기도 내의 바이오센터 등을 시찰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현민 주체로 세계 각지와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호 경제 발전 및 관광 진흥 등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교류와 복지·위생, 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한 실효성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와의 관계에서도 이제까지의 교류 인연을 더욱 강화하고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가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가겠다.

가나가와현의 매력은

가나가와현은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에 정치의 중심지로 변형했던 가마쿠라와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세계를 향해 열린 일본의 창으로서 시대를 선도했던 요코하마항,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일본 경제의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게이힌공업지대 등 일본의 발전을 지탱해 온 지역이다. 지금은 고도의 과학 기술 및 첨단 산업이 집약된 주요 산업 거점이 되었다. 또 요코하마는 내년 럭비월드컵 2019의 결승전 개최지로 결정되었고, 에노시마는 2020년 도쿄올림픽 요트경기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편안하고 활기찬 도시 만들기과 각자의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목표로 복지 교육, 육아, 문화 환경, 다문화 공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현민이 활약하고 있다.

한국 분들이 이런 가나가와현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하고 이곳과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으면 좋겠다.

(집필 : 가나가와현, 협력 : CLAIR, Seoul)



무대에서 함께 웃으며 느끼는 행복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사회를 맡은 오카와 노부코(大川信子) 씨. 유창한 한국어 실력까지 갖춘 그녀가 진행하는 무대는 언제나 밝은 에너지와 활기로 넘쳐나서 관객 모두 행사를 즐기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오카와 노부코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경험했던 풀뿌리 교류와 앞으로의 양국 간 문화교류 등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05년 일본에서 개최된 한 한류 팬 미팅을 담당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과 한국의 무대 진행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대본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한국 분들의 돌발적인 행동에도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저를 자주 불러주셔서 수많은 팬 미팅이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는 베테랑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개방적인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모색하던 시기에 한국 분들의 열정과 감정 표현의 차이에 많은 관심이 갔습니다. “뭐지. 이 직설적인 표현은. 웃음 포인트도 전혀 다르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역을 거치면 웃음에도, 말에도 시차가 생겨서 ‘모두와 함께 웃고 싶다’는 마음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팬 미팅을 통해 멋진 연기자와 가수 분과 만나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도 잘 알게 되었고, 한국 현지에서 쓰이는 한국어와 문화를 배워서 연기의 길로 들어서고자 유학을 온 것이 활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現在, 日韓の多様な分野で活躍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が、韓国で活動す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何でしょうか。

2005年に日本で開かれた、とある韓流ファンミーティングを担当したのがきっかけです。当時は日本と韓国では舞台の進行の仕方が全く違って、台本があつて無いような韓国の皆さんの突発的な行動にもアドリブで対応できる私はとても重宝してただけたようで、数々のファンミーティング、記者会見を担当しました。日本ではベテランと言われましたが、自分の中ではもっと開放的な表現ができるのではと模索していたときに、韓国人の情熱、感情表現の違いにとっても興味が湧きました。「なんだろう。このストレートな表現は。笑いの組立て方も全く違う」と思いました。ただ、通訳をはさむと笑いにも、話にも時差が出てきて、「ああ、皆と時差なく笑い合いたいなあ。」と思ったのが韓国語を学び出したきっかけです。ファンミーティングで沢山の素晴らしい演技者の皆さん、歌手の皆さんにお会いしてから、韓国文化コンテンツにも詳しくなっていく、韓国の生きた言葉、生活を知って、演技の道に進みたいと留学したのが活動のきっかけです。

지금까지 오카와 노부코 씨가 느낀 한국의 매력이나 한국인의 매력은.

한국에 살면서 느낀 한국의 사계절은 매우 역동적이고 매력적입니다. 특히 한강이 얼어붙은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웃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아끼고, 어릴 적부터 자존심이 강하게 키우기 때문인지 거짓말이 서툴고 감정에 솔직하며 직설적인 부분도 있고 칭찬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국인의 행동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남북회담이 단기간에 실현되었고, 8월 말부터 카페에서 1회용 용기 사용이 금지되고, 버스에서 음료수 반입이 금지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추진력과 행동력에 놀랐습니다. 이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좋은 것, 새로운 것, 환경 보전에 대한 높은 의식 등이 한국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축제한마당 사회자로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2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최대급 축제의 사회자라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제는 문화를 통해 사람을 이어주는 곳이자, 출연자에게는 서로의 무대에 매료되어 열정을 주고받으며 스스로 배울 소중한 기회입니다. 8년 동안 무대를 지켜보면서 그 성장 과정이나 하모니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경험한 출연자와 자원

今まで大川さんが感じた韓国の魅力、韓国人の魅力は。

ソウルで生活しながら感じた韓国の四季は、とてもダイナミックで魅力を感じます。特に漢江が凍っている姿はとても美しいです。また、韓国では隣人の子どもを自分の子どものように可愛がり、子どもの頃から自尊心が育っていて、嘘がつかないというか感情に素直でストレートなところもあり、そして褒めるのが上手でもあって。これが韓国の皆さんの魅力だと思います。また韓国の皆さんの行動力には驚かされます。私は政治的な事はよくわからないのですが、南北会談が短期間で実現され、8月末からはカフェ内での使い捨て容器の使用が禁止になり、バスの中に飲み物を持ち込むことはやめようという環境問題に対する働きかけがありましたが、その速さ、行動力には驚かされました。これは韓国の「バリバリ文化」と「ウリナラ文化」が良い方向に変わった結果だと思います。このように良いもの、新しいもの、環境保全への意識が高いところも韓国の魅力です。

日韓交流おまつりの司会者として、ご感想をお聞かせ願います。

日韓両国民が心をつにし、努力し合いながら作り上げる非常に意義深いお祭りです。2つの国が共同開催する最大級のお祭りの司会者という光栄な機会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お祭りは文化を通じて人を繋げていく場所でもあって、出演者もお互いの舞台に魅了され、共に情熱を受けて、自ら学ぶことができる貴重な機会です。

8年間舞台を見守り続けて、その成長過程とハーモニーなど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一度経験した出演者やボランティア



봉사자가 다음 사람을 이끌어주고, 이들이 사회인이 되어 양국의 가교로서 국제적으로 활약하면서 양국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을 만든 분들의 미래에 관한 생각을 기초로 이 축제가 차세대 젊은이로 이어져 미래에는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처음 참여했던 2011년 9월 2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축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 질 무렵, 양국의 출연자와 자원봉사자들이 강강술래에 맞춰 큰 원을 그리며 춤을 추었는데 축제의 본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해였지만, 관련 지역에서 많은 출연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출연자인 센다이 스즈메오도리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춤춰도 되는구나. 그렇구나'라며 웃는 얼굴로 울먹이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관람객도 함께 감동했고, 희망의 싹을 키울 수 있다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이 양국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특히 한국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일축제한마당에 꼭 한번 놀러 오세요. 가족, 친구, 혼자서도 각각 감동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피날레에서 어린아이가 된 기분으로 마음껏 춤추고,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함께 미래를 만들고 함께 하는 감동과 꿈, 미소가 가득한 곳을 같이 즐겼으면 합니다. 또 일본에서도 개최되고 있으니 양국 축제에 꼭 참여해 주기 바

라가次の人を支えてくれるようになり、その学生達が社会人として日韓の架け橋としてグローバルに活躍していて、日韓はお互いを尊重しながら自然に交流をす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と思います。日韓交流おまつりを作られた皆さんの未来への思いを礎にしてこのおまつりが若い世代に引き継がれ、未来に向かってさらに大きく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日韓交流おまつりに参加してからやりがいを感じた時はいつでしょうか。

2011年9月25日、ソウル市庁広場で開催されたおまつりを覚えています。陽が沈む頃に、両国の出演者とボランティアが韓国の民俗遊びである『カンガンスルレ』に合わせて大きな輪になって踊り、お祭り本来の姿を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東日本大震災の年でしたが、関連地域からも沢山の方々が参加されていました。出演者の仙台スズメ踊りの方々が「ありがとう。本当に良い時間になった。私達は踊っていいんだ。そうなんだ。」と笑顔で涙ぐまれていたのがとても印象的でした。観客の皆さんも感動してくださったり、希望を見つけて下さるんだな、とやりがいを感じました。

日韓交流おまつりが両国国民に伝えるメッセージ、特に韓国の人々に伝えたいメッセージがあれば、お願いいたします。

日韓交流おまつりにぜひ遊びに来て下さいね。ご家族、お友達、お一人さまでも。それぞれに感動していただける要素がおまつりの中にはあります。フィナーレでは子どもの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思いっきり踊って、また遊びに来て下さいね。一緒に未来を作る、共に歩む、感動や夢、笑顔が広がる場所を





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 하나가 되어 만드는 감동을 경험해 보세요.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즐기고 설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한일축제한마당 사회는 가능하면 2020까지 맡고 싶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진행하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흐름을 익혀서 스태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안정된 기반을 다음 분께 전해주고 싶습니다. 20년 후까지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2020년 이후에는 게스트로 등장해서 한일축제한마당의 분위기를 띄우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양국 대하 드라마 출연 제안도 받고 있어 가능하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또 일본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 작품의 성우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짓지 않고 여러 분야의 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러브 코미디 작품이나 요리 관련 프로그램은 물론, 정보 오락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싶습니다. 일본인이지만 제게 있어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가능하면 관광홍보대사 등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많은 분들과의 만남에 감사하며, 틀에 박히지 않고 함께 웃음을 주고받으며 양국 교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표현 자로서, 또 한 명의 여성으로서 빛났으면 합니다. 호기심과 모험심도 잊지 않고 세계의 문화 등도 배우면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一緒に楽しんでいただけたらと願っています。また、日本でも開催されていますので、ぜひ両国のお祭りに参加して下さいれば嬉しいです。学生の皆さんはボランティアと一緒にして共に創る感動を経験してみてください。心で感じるものがありますから。まずは私達が楽しんでワクワクすることが大切なんだと感じます。お待ちしております。

今後の活動計画は.

日韓交流おまつりの司会は、できれば2020年まで担当したいです。10年間も担当した方はいないと思います。一つの流れを経験して、スタッフの皆さんと安定した基盤を次の方に引き継ぎさせていただけたらと感じています。20年後も担当したい気持ちはありますが、2020年以降はゲストで登場して日韓交流おまつりを盛り上げて貢献できればと思います。

他には日韓大河ドラマの話が来ていて、できればお受けして良い姿をお見せしたいです。日本での韓国文化コンテンツ作品で声優のお話もいただいています。

自分に限界を作らず、色んな事に挑戦したいですね。韓国でラブコメディ作品や料理関連の番組はもちろん、情報バラエティもどんどん出ていきたいですね。日本人ですが私にとっては韓国はもう第二の故郷です。できれば観光広報大使などでも貢献できたらと願ってます。

今後も韓国での沢山の方々との出会いに感謝して、型にはまらず、共に笑い合える、日韓交流に柔軟に対応出来る表現者として、1人の女性として、輝いていたいと願っています。好奇心と冒険心を忘れずに、世界の文化なども学びながら、より成長した姿をお届け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그 현장 속으로

염소라 일본문화원 리포터(47기)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한일 우정의 해'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양국 최대 규모의 교류 행사로서 1년에 한 번! 한국에서도 일본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행사다. 올해는 제14 회째로서 다양한 마당놀이와 체험, 전시, 현장 이벤트, 무대공연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신나게 둘러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는 평화와 선린우호를 상징하는 '조신통신사 재현 퍼포먼스'가 공식행사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교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즐거운 축제'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한울림예술단의 사물놀이 공연, 도쿠시마 아와오도리 춤 공연, 일본 전통음악그룹 'WASABI'와 'KIKAKUYA'의 일본전통무용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즐거운 만남'을 주제로 한 제3부에서는 한국의 '부산기병대'와 일본의 '바칸기병대'의 합동 공연, 한일 코스프레 공연, 한국 태권도와 일본 가라테의

파워풀한 무대 등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 J-POP과 K-POP 공연으로 'FlowBack'과 '모모랜드'의 화려한 공연으로 제4부가 꾸며졌다.

공연 이외에 일본식 카레, 규동, 한우스지꼬치, 오코노미야키, 니꾸망, 라무네 등 푸드 부스에서는 평소 한국에서 먹기 힘든 일본 먹거리를 먹어볼 수 있어 행복했다. 지자체 부스로 나가사키현, 청주시, 가가와현, 야마구치현, 시즈오카현, 부산문화재단, 일본정부관광국, 돗토리현, 니가타현, 요코하마시,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등 일본에 가지 않아도 지역 소개 영상과 퀴즈 풀기,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일본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서로가 더욱 긴밀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양국의 우정을 한층 돈독히 하고 앞으로 서로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발판이 되기 바란다.

한국과 일본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

구분회 일본문화원 리포터(4기)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양국에서 각각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을 모두 다녀왔다. 일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9월 22일(토)~23일(일) 도쿄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Tokyo'에서는 자원봉사 및 리포터로 취재 활동을 했다. 이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다. 비 예보가 있어서 걱정했지만 다행스럽게 이를 동안 기적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오히려 햇볕이 강해 축제를 찾아주신 방문객들이 날씨 때문에 지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많은 분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축제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웃는 얼굴로 부스 체험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덩달아 즐거웠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들은 고구려 시대의 전통 의상을 입고 보고 사진도 찍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나는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은 편이었지만, 부스를 찾아주신 일본 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서로가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는 없었지만, 귀

기울여 듣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 나가려고 노력하니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서로의 문화를 느껴보고 관심을 두고 이해와 배려, 존중이 빛나던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은 올해가 10주년으로 다양한 전통공연 및 커버댄스, K-POP 콘서트 등 볼거리가 풍성했다. 유명 가수들이 자리를 빛낸 콘서트에서는 한국 분들은 일본어로, 일본 분들은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다. 두 나라로 구분 지어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과는 상관없이 서로의 문화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양국에서 진행된 한일축제한마당은 나에게도 방문객 모두에게도 즐거움이자 공통점을 찾는 기회였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 신기했다.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 행사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



모또 motto

영화 ‘해피 해피 브레드’를 본 것이 계기가 되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안지혜 씨. 법대 졸업 후, 교육과 음악 방송국 PD를 거쳐, 미국에서 영화 공부를 하고 영화과 교수를 지낸 뒤 빵 굽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나는 누구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 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자기 길을 찾은 사람의 여유와 행복함이 묻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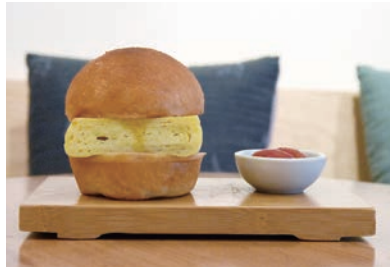
모또(motto)라는 의미와 이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

일본 제과를 배우고 나서 일본식 빵을 만드는 카페를 차릴 준비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가게 이미지와 비슷한 일본 이름을 생각하던 끝에 찾아낸 단어가 ‘모또’입니다. 빵을 만들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나아지고 싶다는 의미도 있고 어감 자체도 웬지 빵을 연상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또, 영어로 ‘motto’는 소신 있다는 의미도 있으므로 여러모로 제가 생각하는 바와 뜻이 많이 겹치는 단어라는 생각에서 지었습니다.

대학 전공과 달리 음악이나 영상 관련 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빵’은 언제부터 관심이 생기셨나요.

삼시 세끼 빵만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좋아하지만, 제가 빵 만드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0여 년간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며 치열하게 살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 자신에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2년 동안 작은 공간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지냈는데, 영화 ‘해피 해피 브레드’의 스킷 굽는 장면을 보고 베이킹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남이 만들어 준 것을 먹는 데 익숙해 있다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고 힐링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런 것들로 채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제빵 제과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다면.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의 제빵 제과 등을 먹어보고 빵 만들기를 선망하게 되어 지인 소개로 일본 제빵 제과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 영화에 나오는 음식 만드는 이들의 '장인 정신'도 좋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에 자부심을 느끼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타협하지 않는 점 등이 제게는 많이 와 닿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빵을 만들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어려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빵 만드는 과정은 행복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 부족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빵 만드는 과정은 언제나 설레는 작업입니다. 레시피가 있다고 해도 매번 같은 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드는 사람, 들이는 시간과 재료, 분량의 미묘한 차이 등이 매번 다른 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항상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입니다. 나무 같은 자연 소재와 눈에 편한 색으로 가게를 꾸미고 싶었습니다. 멋보다는 제 공간에 눌러 오신듯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가게 소품도 제가 소장하고 있던 물건을 활용했습니다. 또 원목의 따뜻함과 음악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운 분위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일본식 카페나 스위트 등이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매력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아담한 카페가 '일본식'이라 유행했다기보다, 현대인에게 쉽지가 필요했고 편안한 일본식 인테리어가 이러한 니즈에 부합되면서 많은 공간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는 유행을 따랐다고보다, 제가 좋아하는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단한 도전을 해온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과 주위 시선과의 타협점이랄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던 끝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계속 한 우물만 파지 못했다'라는 제 나름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빵 만드는 일에 여유가 생기면 목공과 도예를 배워서 가게에서 사용하는 원목 가구나 그릇까지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우뚝 솟아있는 가케가와성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가케가와

가케가와시(掛川市)는 일본 열도의 거의 중앙, 시즈오카현 서부 지역에 위치하는 인구 약 12만 명의 도시로서, 남북으로 넓은 지형에 푸른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조 시간이 길고 연중 온난한 지역으로 눈은 거의 내리지 않는다. 기후와 시민성도 ‘온화하고 따뜻함’ 것이 특징이다. 또 신칸센 가케가와역과 2개의 도메이(東名)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등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고 일본의 신칸센역 가운데 유일한 목조 역사인 가케가와역은 가케가와시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 인근에는 후지산 시즈오카공항이 있어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 주 3회(월, 목, 토) 운항하고 있다. 공항을 오가는 셔틀 택시는 편도 1,000엔으로 가케가와역에서 공항에 가는 택시는 예약이 필요하다. 역사적인 풍토도 좋아 가케가와성(掛川城)을 비롯해서 다

카텐진성(高天神城), 요코스카성(横須賀城) 3개 성이 건축되어 역사적 무대가 되었으며, 당시의 거리 모습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이처럼 가케가와시는 도시와 시골의 장점이 어우러져 2018년도 동양경제신보(東洋經濟新報) 지자체 랭킹에서 현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 가운데 ‘살기 좋은 랭킹’, ‘활력도 랭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관광 문화

신칸센으로 도쿄에서 약 2시간, 나고야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가케가와시. 신칸센 차창으로 바라보는 가케가와성은 1854년 도카이대지진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1994년 일본 최초의 ‘본격 목조 천수각’으로서 시민 기부



가케가와역

에 의해 140년 만에 복원되었다. 가케가와성 주변은 시민 기부로 건설된 니노마루 미술관과 스테인드글라스 미술관, 차 문화 진흥을 위한 니노마루 다실, 일본의 전통건축물인 다케노마루 외에, 도덕과 경제의 조화를 주창한 ‘보덕사상(報德思想)’ 보급의 중심이 된 대일본보덕사(大日本報德社)와 함께 ‘역사문화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국가 중요문화재인 가케가와성 저택과 대일본보덕사 대강당을

비롯한 수많은 유형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어,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역 남쪽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는 형형색색의 꽃과 다양한 종류의 새를 볼 수 있는 ‘가케가와 화조원’이 있어 새와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버드 쇼 같은 이벤트가 많아 주말에는 가족 단위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또 시 중심부에 있는 휴양 시설 ‘쓰마고이리조트 사이노사토(彩の郷)’에서는 워터파크를 비롯해서 골프, 양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부지 내에 자연으로 둘러싸인 온천 ‘삼림탕’은 대자연을 바라보는 노천탕으로써 인기가 많다. 그 외에도 시내에는 구라미 온천, 다이토 온천 씨토피아, 나라코코노유 같은 온천 시설이 많아,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최적지다.

차

가케가와시 특산품인 녹차는 일본 굴지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한편, 매년 개최되는 품평회의 후카무시 전차(深蒸し煎茶) 부문에서 통산 21회째로 일본 최고를 차



아와가타케에 보이는 '차' 라는 글자



마을만들기 협의회

지하고 있다. 매년 4월 하순에는 가케가와 시내 각지에서 찾았을 수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공 시설 주변은 신차의 향기로 가득하다. 또 차 밭 주변의 억새와 대나무 등을 밭에 유기물로 주는 전통적인 농법은 풍부한 지역 생물의 다양성을 기르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3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농업유산 ‘시스오카 차구사바 농법(静岡の茶草場農法)’으로 인정받았다.

마을만들기

1979년 구 가케가와시는 일본 최초로 ‘평생학습 도시선언’을 하고 시민 개개인의 충실한 삶과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왔다.

또 합병 후 가케가와시에서는 구 가케가와시가 추진하던 평생학습에 의한 마을만들기로서 구 다이토정(旧大東町), 구 오스카정(旧大須賀町)의 주민 활동을 계승하는 형식으로 평생학습의 기본 구상을 정하고 2007년 다시 한번 ‘평생학습 도시선언’을 했다.

가케가와시의 ‘평생학습’이란 평생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서로 문제나 과제 의식을 공유하면서 지역 사회와 시정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즉 ‘협동’을 전제로 한 배움을 권하고 있다. 즉, 가케가와시 평생학습에 의한 마을만들기는 정보 공유에 의한 상호 이해와 참여, 협동의 개념을 내포한 도시 조성 추진 운동이다.

현재는 지금까지 평생학습 운동으로 키워온 시민과 지역의 힘을 활용하여, 스스로 지역의 장래 상을 그려내고, 행동하는 새로운 차원의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시 차



횡성군과 가케가와시 자매결연협정체결 조인식

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가케가와시 마을만들기에 대해 한국의 지자체나 단체도 시찰을 위해 방문하고 있다.

자매 도시

평생학습을 계기로 2011년에 한국의 강원도 횡성군과 자매도시결연을 체결했다. 2016년도부터는 직원 1명을 각각 파견하여 상호 행정 시스템이나 문화, 습관 등을 배우으로써 양 도시 직원의 국제 감각을 키우는 한편, 도시 간, 국가 간의 새로운 상호 이해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광, 경제 분야 등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가 기대된다.

끝맺음

이처럼 시민과 기업, 행정 등이 하나가 되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케가와에는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시민이 많다. 신칸센 목조 역사 건설과 가케가와 성 천수각 복원 등 시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실현된 것도 많으며, 각 지구의 마을만들기 협의회 설치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자주적인 활동 등 시민이 주체가 된 마을만들기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도 꼭 역사와 전통이 공존하는 가케가와에 오셔서 관광, 온천, 쇼핑 등을 즐기며 운치 있는 거리를 느끼기 바란다.

(집필 : 가케가와시, 협력 : CLAIR, Seoul)

2018 일본국제교류기금 해외순회전

구축환경 : 또 하나의 일본 가이드 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일본국제교류기금은 <구축 환경 : 또 하나의 일본 가이드 전>을 개최한다. 이 전시는 19세기 후반 일본의 근대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에 조성된 건축, 토목, 풍경 등 79점의 작품을 선정해 사진과 텍스트, 영상을 통해 소개하는 자리로서, 지리 및 환경적 특성 등이 강하게 반영된 일본의 건축, 토목, 풍경을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다양한 흥미요소를 찾아보는데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입장무료.

일시 10월 10일(수)~25일(목) 10:00~17:30(토, 일 휴관)**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본국제교류기금**후원**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가나다순)**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20, 123)

옛 가이드(開智)학교 : Photo courtesy of The Former Kaichi School



오나가와(女川)역-미야기현 : Photo courtesy of Onagawa Town



하쿠스이 타메이케엔테-오이타현



부코산-사이타마현

아오레 나가오카(나가오카 시청사)-니가타현
Photo by Mitsumasa Fujitsuka

케이힌(京浜) 공업지대-도쿄도, 가나가와현 : Photo by Ken OHYAMA

‘한일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기념 국제 학술회의
‘한일문화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

‘한일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 및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기념 학술회의가 ‘한일문화교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기조강연 및 패널디스커션을 실시한다.

제1부에서는 ‘조선통신사 선린외교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관련단체 관계자 및 박물관장, 역사연구가가 강연자, 패널리스트로 참여한다. 제2부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20년과 한일국민교류 1천만 명 시대’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학교수가 강연자, 패널리스트로 참여한다. 입장무료.

일시 10월 12일(금) 13:30~18:00**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주최** 한일문화교류회의**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일보사**문의** 한일문화교류회의사무국 044-868-6825, kjcec1999@gmail.com

제14회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양국의 사회나 문화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방의 언어로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 우정을 쌓아가는 행사다.

일시 10월 13일(토) 14:00~16: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JETAA대한민국지부, 주한일본대사관, 일반재단법인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협력 및 후원 Seoul Japan Club,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Inpainter Global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 140) jetaakorea@gmail.com



2018 제주 JEJU JAPAN WEEK 주요 행사

제16회 일본가요대회

2018 제주 JEJU JAPAN WEEK의 일환으로 주제주총영사관 등이 주최하는 '일본가요대회'가 열린다. 2003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일본가요대회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고교생 이상의 제주도민(과거 입상자 제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서, 매년 폭넓은 연령층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음악을 통해 일본대중문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15일(월)까지로 이메일(information@cj.mofa.go.jp) 혹은 직접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

일정

- 응모 : 10월 15일(토) 마감
- 예선 : 10월 20일(토) 09:00~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
- 본선 : 10월 20일(일) 16:00~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 소극장)

주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한일친선협회,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협찬 동우화인켐, 스미토모 케미칼 그룹

문의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064-710-9523



2018 제주 JEJU JAPAN WEEK 주요 행사

제7회 고등학생 일본어 · 일본문화 퀴즈대회

매년 고등학생들의 수준 높은 퀴즈 대결이 펼쳐지는 '고등학생 일본어 · 일본문화 퀴즈대회' 본선이 오는 10월 27일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주관으로 개최된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본선 참가자가 막상막하의 실력을 겨루며 마지막 문제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상위 입상자 4명에게는 일본정부초청 한국청년방일단(JENESYS)의 특전이 주어진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

일정 10월 27일(토) 14:00~16:00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국제교육정보원)

주관 제주일본어교과교육연구회,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협찬 동우화인켐, 스미토모 케미칼 그룹

후원 (사)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



제7회 인천국제문화교류 페스티벌 ‘일본의 달’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후원, 인천광역시 주최로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구제물포구락부에서 6개 국 문화를 소개하는 ‘인천국제문화교류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특히 ‘일본의 달’인 10월에는 ‘일본의 세시풍속’을 테마로 인형, 장식품, 모형 등의 전시를 통해, 일본의 계절별 의식문화와 생활습관을 소개하는 한편, 전통의상과 전통완구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관람무료

일시 10월 2일(화)~28일(일)

장소 구제물포구락부

주최 인천광역시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인천광역시의회, 주한인도대사관, 주한케냐대사관,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관, 주한이탈리아대사관, 주한멕시코대사관

문의 구제물포구락부 032-765-0261, <http://www.jemulpoclub.com>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한다. 한일포토콘테스트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이 사진을 통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의 촉진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 한다.

응모는 11월 7일까지 한일포토콘테스트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 국적자에게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에게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진행된다. 우수작 응모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된다.

응모 기간(온라인) 11월 7일(수)까지

결과 발표 11월 28일(수)

수상작 전시 12월 14일(금)~12월 20일(목)

시상식 12월 15일(토)

웹사이트 한국어 ▶ <http://kjphotocon.org> / 일본어 ▶ <http://jkphotocon.org/>



10월 일본영화상영회 명배우 쓰가와 마사히코 추모특집

일본의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최고의 연기를 보였던 명배우 쓰가와 마사히코가 지난 8월 4일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인에게 사랑 받았던 200여 편의 영화와 200여 편의 TV드라마 등에서 활약했던 쓰가와 마사히코 씨, 10월 일본영화상영회에서는 그를 추모하며 사회파 명장 이타미 주조 감독과 함께 했던 9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장소 및 일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14:30분부터)

상영 일정	영화 제목
10월 18일(목)	아게만 あげまん
10월 19일(금)	민보의 여자 ミンボーの女
10월 22일(월)	중환자 大病入
10월 23일(화)	슈퍼의 여자 スーパーの女
10월 25일(목)	마루타이의 여자 マルタイの女
10월 26일(금)	장례식 お葬式

쓰가와 마사히코(津川雅彦, 1940~2018)

교토부 출생. 예능인 집안에서 태어나 아역으로 여러 편의 작품에 출연 후, 16세인 1956년에 전설의 명배우 이시하라 유지로의 주연 데뷔작이자 대히트작인 '미친 과실'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배우가 되었다. 이후 200여 편의 작품에 주연 및 조연으로 출연하며, 일본영화계에 없어서는 안될 캐릭터를 구축했다. 특히 사회파 명장 이타미 주조 감독의 대부분의 작품에 주연과 조연으로 출연하며, 명연기를 보였다. 코믹하면서도 중후함을 함께 갖고 있는 몇 안되는 배우 중 한 명이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대항만으로는 알기 쉽다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심중하고 좌충우돌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천만 명 가까운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웃 나라 일본.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두 나라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문화교류 행사다.



一緒につなごう 友情を未来へ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
즐거운 축제 / 즐거운 만남 / 즐기는 우리

14회나 된 행산데
저는 왜 이런
교류 행사가 있는지도
몰랐을까요~

-후배.

하하호호~

일본의 각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가하고 자원봉사자만 무려 500명이나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이번 한일축제한마당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양국이 함께
추진하여 그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공동 등재된
조선통신사가 아닐까 해~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일본으로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다.



*재일 역사학자 신기수 씨가 오사카역사박물관에 기증한 1711년 조선
통신사 일행을 그린 '경덕도조선통신사행렬도'. (오사카역사박물관 소장)

부산문화재단의 조선통신사

釜山文化財団

국가가 아닌 양국의 민간이
나서서 이런 결실이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통신사 축제에
꼭 가보고 싶어요~

함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가라아게와 오코노미야키, 규동 등
일본의 서민 음식으로 간단히 시장기를 때우고 또 다시 구경에
나섰다.



한일축제한마당에서는 체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 화지
(和紙)로 접는 나만의 책갈피.



일본의 전통의상도 착용해 보고



일본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널뛰기와 투호놀이 등 우리
나라의 다양한 전통놀이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뿐 아니라 메인 무대를 장식한 다양한 공연들!
J-POP, K-POP에 젊은이들은 열광했고
양국 합동의 요사코이 무대와 도쿠시마
아와오도리 등은 가슴이 뭉클했다.



피날레 공연을 마치고 흥을 돋구는 사물놀이패의 신명나는
공연에 양국의 이웃들은 서로의 시름을 잊은 채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보냈으니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조선통신사가 아닌가!

